"자비심 키워서 나와 남 둘 아니게 하라"

도견 스님 (해인사 극락전 한주)

1925년 강화에서 태어남. 1944년 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역임. 성철 스님의 권유로 해인사 주지 역임. 해인사, 송광사, 범어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선방에서 50안거를 성만하였다. 지금은 해인사 극락전에 주석하고 있다.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인사(海印寺)라는 사명(寺名)만 진실로 알아도 큰 공부가 된다고 했다. 해인삼매는 부처님 정각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며, 오염됨이 없는 청정무구한 우리의 본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인사 일주문에는 '입차문내 막존지해(入此門內 莫存知解), 이 문안에 들어와서는 모든 알음알이를 버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본디 우리의 마음은 명경지수와도 같아 맑음 그 자체이지만, 알음알이로 인해 탁해졌으니, 그 식(識)을 일주문에 내려놓고 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구이다.

극락전 와선당(臥仙堂) 댓돌 위에는 낡은 털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 옆에는 손때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주장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여름의 겨울 털신과 군데군데 옹이 박힌 주장자를 보니 막힘도 걸림도 없는 수행자의 가풍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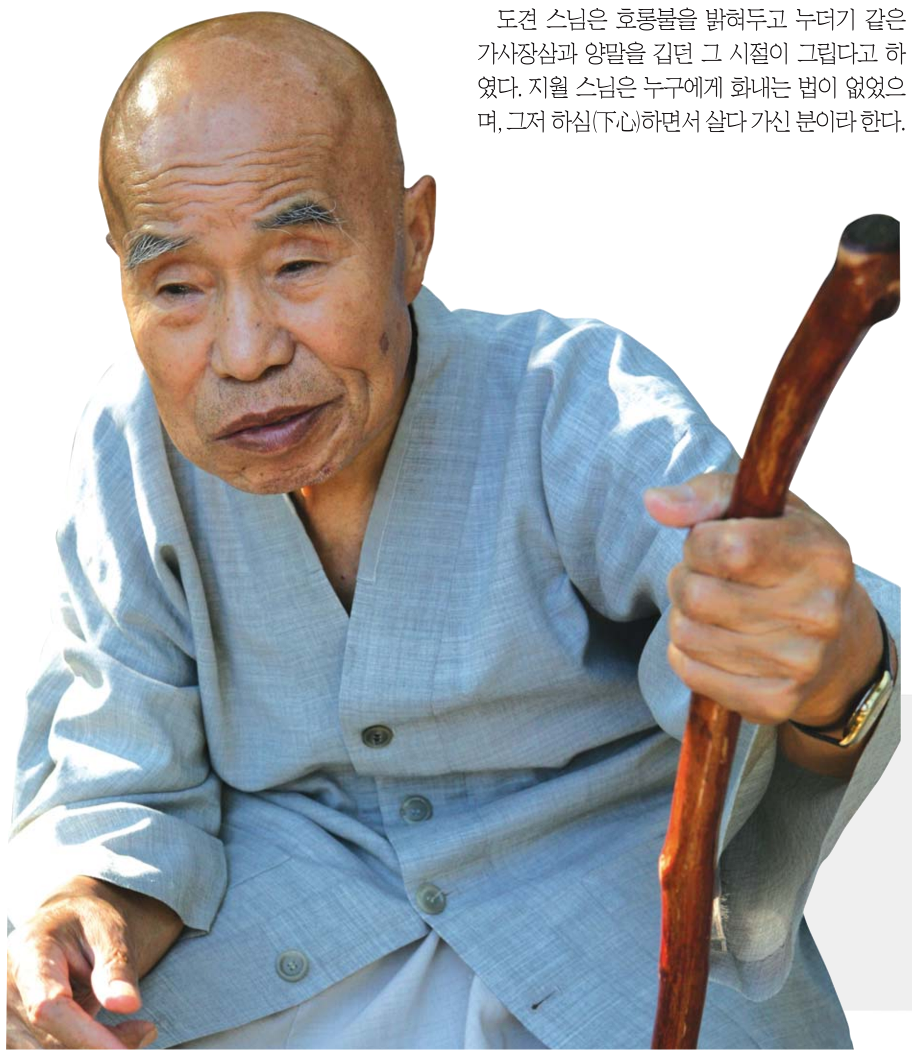
막 오후 포행을 나서는 도견 스님을 만나 뵈었다. 올해 여든넷이신 스님은 "작년에 심하게 앓고 나서 허리가 더욱 더 굽었다"고 한다. 하지만 평생을 참선으로 일관해 오신 스님이라 그런지 얼굴은 한없이 자애롭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다.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진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경내를 한 바퀴 돈다. 일주문을 지나 스승 지월 스님의 부도탑을 비롯하여 성철 스님, 자운 스님, 일타 스님의 부도탑 주변을 돌면서 '열반 후의 한 소식'을 묻는다. 그리고 오후에는 날이 좋으면 극락전에서 걸어서 한 시간도 넘게 걸리는 지족암의 뒤편에 있는 토굴에서 선정에 드신다. 그 토굴은 일타 스님이 정진하시던 곳인데 도견 스님께 물려주었다.

강화도 백련사의 화주보살이었던 속가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태몽을 들려 주곤하였다. '고려산 꼭대기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또 산 중턱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태몽 탓인지 도견 스님은 열일곱 살에 출가하겠다고 발심하였다. 오대산 동관음암에서 인욕보살이요, 자비보살이라 일컬어지는 지월 스님을 만났다.

"산중에서 지월 스님과 둘이서 살았지. 그때 지월 스님은 행자인 나에게 아무 것도 시키지 않고 직접 나물 뜯고 밥을 하시데요. 그리고 율의(律儀)에 따라 보름에 한 번씩 목욕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벗어놓은 옷을 깨끗이 빨아주셨어요. 원래 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인줄 알고 스승님 하시는 대로 가만 있었지. 그런데 하루는 지월 스님의 도반 한 분이 오셨는데 나를 어찌나 꾸짖던지…. 불교가 좋아 출가는 했지만 스승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법도도 잘 몰랐지."

도견 스님은 호롱불을 밝혀두고 누더기 같은 가사장삼과 양말을 깁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하였다. 지월 스님은 누구에게 화내는 법이 없었으며, 그저 하심(下心)하면서 살다 가신 분이라 한다.



"지월 스님을 모시고 일 년 동안 <천수경>과 <초발심자경문>을 배웠으며, 가장 큰 공부인 자비심을 배웠어요. 자비심은 '나'라는 이기심을 없앤 마음이요, 남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확대되면 남과 '내'가 둘이 아니며,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어요. 자비가 넘쳐나는 그 마음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후 도견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 3년간 머물면서 다른 경전도 공부했지만, 한암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주로 배웠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 무엇인고(有一物於此 一物何物)."

도견 스님은 함허 선사가 쓴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서설(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序說)>에 나오는 첫 구절을 툭 던지면서 "이것도 아주 좋은 화두니 공부할 만하다"고 하신다.

함허 선사의 <금강경>서문과 주석에는 불법의 정수가 담겨있기에 일 천권 정도 인쇄하여 후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함허 선사께서는 강화도의 정수사에 주석하시면서 <금강경>의 서문을 지었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 서문을 축석 쌓는데 넣고 돌담을 쌓아버렸어요. 함허 스님이 돌아가신지 십 년이 지난 어느 날 그곳에서 날마다 방광을 해서 꺼내보니 <금강경> 서문이 나왔다고 해요. 중국의 어느 총림의 방장이 누워서 시자가 읽어주는 험허 스님의 서문을 듣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는 일화도 있어요."

한암 스님으로부터 경전과 선을 익힌 후 해인사로 갔다. 해인사에서 삼년결사를 하였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 삼년결사가 깨졌고, 그 후에는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삼년결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동산 스님의 입적으로 삼년결사가 깨졌다. 기어이 도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모시고 열댓 명이 삼년결사를 하였는데 끝까지 이루어낸 사람은 도견 스님뿐이었다. 도견 스님은 평생 동안 오십 하안거를 회향하였으니 선객중의 선객이다.

도견 스님은 "우리들이 천년 이후에 태어나서 어려운 보배를 만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니 그 다행스러움이 이보다 큼이 없다"는 함허 선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선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는 말을 거듭했다.

스님은 불자의 바른 도리는 첫째는 자비심을 키워나가야 하며, 둘째는 근본 계율은 꼭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남을 위할 줄 알고 자신을 잘 단속한다면 인격의 성숙은 물론이요, 승속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한다.

"중생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뭇 생명을 제도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시를 함으로써 복덕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불음주계(不飮)酒戒)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오계 중 무엇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도견 스님의 제자 10여명 가운데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과 백양사 율주 혜권 스님 같은 대표적인 율사들이 배출된 것도 이러한 스승의 간절한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다.

종회의장직을 내놓은 지도 오래고, 십년 넘게 활동했던 원로의원직을 내놓았지만, 도견 스님은 '범불교도 대회'가 세간에 어떻게 비쳐지는지 궁금해 하셨다.

가야산의 깊은 골에 잠시 금빛이 내려앉는 듯하더니 어느새 옅은 먹빛 어둠이 경내를 휘감는다. 그리고 둔중한 법고 소리가 허공을 가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진다.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문고를 퉁기는 묘한 손가락은 있으나 음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귀(지혜인)를 만나지 못했음을 슬퍼한다고 했다. 혹 누군가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면 무엇이 슬픔을 만들고 있는지 한 번 들여다 볼 일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50안거 성만, "선공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 "지계는 수행의 근본", 종진 혜권 등 율사 길러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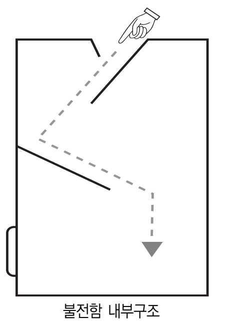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이내)

◆ 크기 : 높이700×넓이700×깊이350 / 투입구 : 가로350×세로350

◆ 크기 : 높이620×넓이350×깊이350 / 투입구 : 가로190×세로95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사무용)도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BY630 사무가정용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60×335
BY6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60×320
BY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5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불전함 내부구조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마이산 탑사, 부산 금정사외 계룡사, 보광사, 법성사, 혜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팩스 031)764-6462 / 011-414-2304
[계좌번호] 농협 221103-52-056910 (강순길) 기업 485-005940-01-017 (강순길)